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8-29)



〈토마스의 의심〉, 두치오 디 부오넬세나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2독서] 묵시 1,9-11나.12-13.17-19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19-3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성가: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130] 예수 부활하셨네

[제1독서] 사도 5,12-16

[화답송] 시편 118(117),2-4.22-24.25-27ㄴ
(◎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¹⁹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²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 ²¹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²²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²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 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 ²⁵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 ²⁶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 ²⁷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 ²⁸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 ²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³⁰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 ³¹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묵상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끕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과 토마스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층 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층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에 서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물질적인 것들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굳게 닫힌 문들은 그분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선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이런 평화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싸인 제자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샘인 당신의 상처, 곧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분의 상처는 모든 악과 장애를 물리치신 무한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부활 시기는 기쁨의 시기입니다. 부활 팔일의 전례는 복음 환호송으로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시편 118(117),24)를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부활의 기쁨보다 더 큰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열정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특별한 능력의 시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하고자 주님과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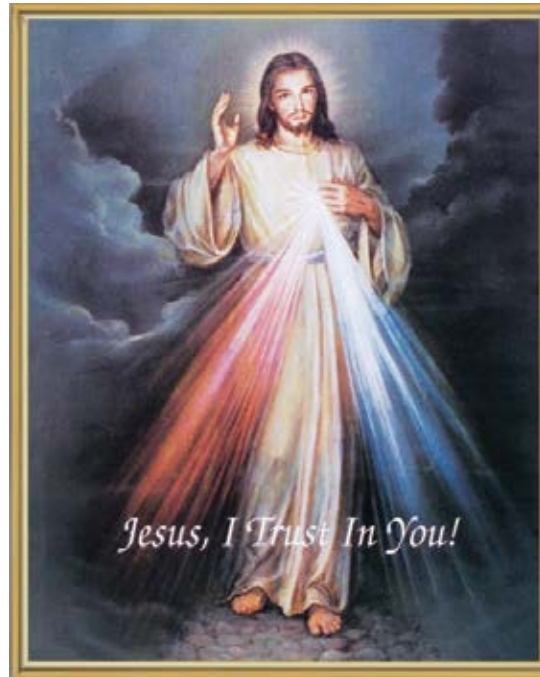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불린 마리아 파우스티나(1905-1938) 수녀를 시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교황이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를 새천년기 첫 성인으로 선포한 것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교황이 강조한 하느님 자비의 증거자였다. 폴란드 출신인 파우스티나 수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이를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각별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던 파우스티나는 20살 때 자비의 성모수녀회에 입회해 주방과 정원사, 문지기 등의 소임으로 13년을 살았다. 수도생활 중에 체험한 계시와 환시를



통해 자신의 사명이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1934년 고해사제의 뜻에 따라 영적 체험을 통해 받은 하느님 메시지를 일기 형식(‘나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으로 발표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일기에서 “하느님 자비를 얻기 위해선 하느님께서 자신의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말과 행동, 기도를 통해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하고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에는 “첫째는 행동, 둘째는 말, 셋째는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아무리 돈독한 신앙을 가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 신심의 핵심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세상에 일깨우고,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신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드리는 의탁이 필요하다. 또 말과 행동과 기도로써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하느님의 자비 상본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1931년 2월 22일 환시 중에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수녀가 본 당신 모습 그대로 상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넣도록 하셨다. 그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표시가 나타나 있고, 심장으로부터는 붉은 빛과 옅은 빛의 두 광채가 발산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이 두 광채는 성체성사(붉은 광채)와 교회(옅은 광채)를 상징한다.

✧ 하느님의 자비 축일

성녀의 일기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제2주일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자비 축일을 지낼 것을 요청하면서 이 축일이 모든 이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기를 바라셨다. 또 이 축일을 합당하게 지내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모든 성당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성체조배 시간을 갖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이와 함께 성 금요일부터 9일 기도로 이 축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 하느님의 자비 시간

파우스티나 수녀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각인 오후 3시에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십자가의 기도를 바치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 성당에 잠깐 들러 성체 앞에서 자비의 성심을 찬미하는 시간을 바치라는 것이다. 하느님 자비의 신심과 관련하여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받은 메시지에는 이밖에도 하느님 자비의 9일 기도와 묵주로 바치는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비롯해 많은 기도들이 포함돼 있다.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님 부활 대축일의 전통적인 축복인 '로마와 온 세상에 보내는 부활 메시지와 교황 강복' (우르비 엠티 오르비, Urbi et Orbi) 중에 우리 시대의 수많은 고통을 떠올렸다.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메리카대륙의 국가들에서부터 무기 확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언급했으며,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도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축하합니다(Buona Pasqua)!

오늘 교회는 첫 제자들의 선포를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 라는 찬미에 대한 초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젊게 되고 새로워지며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이 생기에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멀리 떠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슬픔, 분노나 두려움, 의심이나 실패로 늙어간다고 느낄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과 희망을 다시 주시고자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1-2항).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삶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이란 늘 마음에서, 양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죄와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마침내 하느님의 나라, 사랑, 평화와 형제애의 나라로 열립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당신 얼굴의 빛을 드러내시며, 시련, 고통,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시리아 국민을 위한 희망이 되시길 빕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낱알이 시련을 겪고, 심지어 무관심 받는 위협에 처해 있으며, 끊임없는 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이제는 자유, 평화, 정의의 합법적인 염원에 응답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의 책임을 쇠신해야 할 때입니다.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별히 레바논과 요르단 등 인접국에서 도망쳐 온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적 해법 말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분열과 긴장으로 찢어진 중동에 눈길을 고정시킵니다.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끈기 있는 인내를 통해 증언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멘 국민들, 특히 기근과 전쟁으로 쇠약해진 어린이들을 특별히 생각합니다. 부활의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시작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을 비추는 한편, 평화와 안정의 미래를 추구하며 수많은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리비아에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가족들이 집에서 강제로 추방됐습니다. 리비아를 피로 물들이는 전쟁이 중단되길 바랍니다. 정치적 불안과 분쟁으로 상처를 들추시지 말고 관련 정당들이 무력을 넘어 대화를 택하길 촉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당신의 평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대륙, 특히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에는 아직도 사회적인 긴장과 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때때로 폭력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사회적) 불안, 파괴, 죽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단도 생각합니다. 모든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오랫동안 열망했던 자유, 발전,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를 위해 각자 부응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번 부활이 여전히 분쟁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주님께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어려운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베네수엘라 국민을 생각합니다. 심화되는 위기로 인해 가치 있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박탈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사회 불의, 학대, 폭력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일치하여 구체적인 행보를 완수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니카라과 사람들의 선의를 위해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찾기 위하여 니카라과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장벽이 아니라 다리의 건설자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는 그분께서 전쟁의 현장에서나 우리의 도시에서나 무기의 소음을 멈추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앞선 나라에서, 염려스러운 무기 확산과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젖히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소득층, 취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실직자들, 소외된 이들, 그리고 빵과 피난처와 인간 존엄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들의 요구에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와 전 세계를 위한 희망이시며 젊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어!

부활을 축하합니다(Buona Pasqua)!

(<http://www.vaticannews.va>)

○ 바오로회 부활절 피크닉



20-30대 부부 모임인 바오로회는 지난 21일(일) Van Dyke Park로 부활절 피크닉을 다녀왔다. 35 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햄버거와 핫도그로 점심을 나눈 후 달걀 헌팅, 달걀 릴레이 게임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비가 예상되어 우려했으나 너무 좋은 날씨여서 회원들은 화창하고 파란 하늘 아래에서 부활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오로회는 20-30대 부부 활동 단체로 매 주일 11시 40분 미사 후 커피타임을 갖고 월례 미팅, 나눔 소그룹, 자매모임·형제모임, 성서모임, 그리고 본당 봉사와 행사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입 문의: 하청수 크리스피노 310-292-4791)

○ 안나회 소식

안나회는 지난 21일(일) 4월 월례회를 열고 회원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며 죽는 것이란 결국 겸손해지는 것, 즉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이어서 생일을 맞은 자매들과 새로 가입한 자매들을 함께 축하하고 환영했다. 회원들은 점심을 먹으며 친교 시간을 갖고 5월에 열리는 장터 한마당에 대해 공지했다.

○ 하상회 소식



지난 21일(일) 부활 대축일 미사 후 하상회 4월 월례회가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부활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회원들과 부활 축하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생일축하와 새로 가입한 최원호 요셉 형제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안윤민 바실리오(교육부장) 형제가 준비한 영상, “부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다”를 보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상회는 오는 5월 15일 국립 성모 동굴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Happy Easter

April 21, 2019

FOLLOW



“Alleluia, Alleluia, Alleluia. The right hand of the LORD has struck with power; the right hand of the LORD is exalted. I shall not die, but live, and declare the works of the LORD.”



2019 likes



St.Paul Chung Catholic Church #Easter #Easter_egg

ANNOUNCEMENT

1 Collecting CRS Rice Bowls

- **When:** April 28(Sun) & May 5(Sun)
- Please **return** your **Rice Bowls** to your home room teachers

2 Spring Fire Drill on May 5, 2019

3 Jr. High BASH 2019

- **When:** Sat., May 11, 2:30pm-10pm
- **Where:**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VA
- **Who:** All 6th-8th graders are welcome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candidates)
- **Cost:** \$10 / participant
- **Registration :** April 14 - May 5
(Sundays, No Service on April 21)
at Sunday School Office

CCD News

Easter Egg Hunt

On April 21, after Easter Sunday Mass, our parish children enjoyed the annual Easter Egg Hunt at the picnic area. Children had even more fun when the Easter Bunny greeted them! Special Thanks to Sunday School PTO, CCD Parent Group and Logos who made this event possible once again. Happy Easter!

- *Yunchong Boyle(Clare)*, CCD Asst.principal



- 1 유아세례**
 • 일시: 4월 28일(일) 오후 3:30
- 2 루카회 모임(60대 교우)**
 • 일시: 4월 28일(일) 오전 11:30(A-4)
- 3 요한회 모임(50대 교우)**
 • 일시: 4월 28일(일) 오전 11:30(B-2)
- 4 2019년 Work Camp 기금 마련 2차 비빔밥 판매**
 • 일시: 4월 28일(일) 오전 9시 - 오후 1시
 • 가격: \$10 (단체주문 환영, 포장도 가능합니다)
- 5 제3회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4월 28일(일) 오후 1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 참가비: \$100 (점심, 저녁 제공)
- 6 복사단 모임**
 • 일시: 4월 28일(일) 오후 1시(A-1,2)
- 7 자비주일 열린 기도회(성령기도회 주관)**
 • 일시: 4월 28일(일) 오후 2:30, 성당
 • 하나님 자비 축일을 맞아 개인, 가족,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감사드리는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4월 28일(일) 오전 11:30(하상관 #4,5)
- 9 서양화가 초대전(하상 성인학교 주관)**
 • 일시: 4월 28일(일)
 • 서양화가, 아마추어 화가들을 초대하여 성화, 풍경화, 정물 등을 전시합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병자 영성체**
 • 일시: 5월 3일(금)
 • 신청: 조영인 요셉 (703)264-0050
- 11 성체강복**
 • 매월 첫 금요일(5월 3일) 미사 후에 "성체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2 제주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 초청 강연회**
 • 일시: 5월 4일(토) 오후 6시
 • 장소: St. John, S 성공회 성당 (9120 Frederick Rd. Ellicott City, MD 21042)
 • 주제: 제주 4.3과 한국 현대사

- 13 주일학교 봄학기 소방훈련(Fire Drill)**
 • 일시: 5월 5일(일) 오전 11:10(하상관)
- 14 구역임원 교육**
 • 일시: 5월 5일(일) 오전 11:30(B-1,2)
- 15 임산부 태아 축복식**
 • 일시: 5월 5일(생명주일), 10시 미사 중
 •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격려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신청: 4월 28일까지 (사무실)
- 16 요한회 주관 6개 단체 친목 운동회**
 • 일시: 5월 5일(일) 오전 11:30-오후 4시(체육관, 나눔터)
 • 루카회, 요한회, 베드로회, 바오로회, 로고스, 라파엘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운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대-60대 미, 기혼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김인태 골롬바노 (703)508-2077
- 17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5월 5일(일) 오후 1시(B-1)
- 18 2019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 일시: 5월 4일(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차편, 점심 제공)
 • 장소: 워싱턴 DC National Shrine
 • 등록: 친교실,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하진 총무 (703)376-1372
- 19 본당 M.E. 부부를 위한 피정**
 • 일시: 5월 12일(일) 오후 1시-5시, 본당
 • 주관: WWMME 리전 19 대표부부 (강정홍 바오로, 마리아)
 • 문의: 김창호 요한 비안네 (tjohnkim@gmail.com)
- 20 76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
 • 일시: 5월 25일(토) 오후 7시-5월 27일(월) 오후 5시
 • 장소: Double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07024)
- 21 5월 성모성월 성물부 세일**
 • 5월 동안 성물을 20% 세일하니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22 이나시오 영성 일일 피정(중동부 한인 CLC)**
 • 일시: 5월 11일(토) 오전 8:30 - 오후 4시 (5801 Security Blvd, Gwynn Oak, MD)
 • 주제: "영신 수련과 성찰" (지도신부: 정만영 골베 신부님)
 • 등록: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 참가비: \$30 (아침, 점심 제공)
 • 문의: 임윤호 요한 (703)201-9506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28일(일)	부활 제2주일 곤, 하나님의 자비 주일	꾸리아(오전 11:30, 하상관 #4), 루카회(오전 11:30, A-4), 요한회(오전 11:30), 성령 기도회-열린기도(오후 2:30), 유아세례(오후 3시), 골프대회(오후 1시, South Riding Golf Club), 서양화 전시(친교실)
29일(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30일(화)	부활 제2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5월 1일(수)	부활 제2주간	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2일(목)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3일(금)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성체강복(오후 7:30), 회정단 회의(오후 8:15)
4일(토)	부활 제2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성모심신(오후 6:15)
5월 5일(일)	부활 제3주일 (생명주일)	태아 축복식(10시 미사 중),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소방훈련(오전 11:10), 단체 친목 체육대회(오전 11:30, 체육관), 성모회(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부활 제2주간: 옴 38-42, 1 코린 5**

KACM TV 하이라이트

5월 2일(목) 오후 5:00-6:00
5월 3일(금) 저녁 8:00-9:00
5월 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6편 : "피레네 산맥을 넘어 푸엔테 라 레이나(여왕의 다리)까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4월 14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일헌금	\$15,421.00
교무금	\$7,540.00
교무금(크레딧카드)	\$1,570.00
특별헌금	\$300.00
2차헌금	\$0.00
성 목,금요일	\$5,141.00
성 토요일	\$7,583.00
합계	\$37,55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민복(마리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재(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가디),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가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가타리나), 김정희(요셉),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정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적전문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마키엘) 703-881-1155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피아노 레슨 유아부터 성인레슨까지 가능하니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703-505-8559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